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뷰

경제의 눈

문화향기

당신은 지금 '진화' 중입니까?



최윤희

자신감은 자유의 또 다른 시작이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인생의 '라인'이 보였다. 그냥 남사는 대로 살다 가지 뭐, 하던 식의 불투명 인생이 '고딕할자'처럼 투명하게 튀어 올랐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변화에도 진화와 퇴화가 있다. 좋은 의미의 변화를 우리는 진화라 말한다. 차라리 그렇게 변할바엔 아예 변하지 않는 쪽이 더 바람직한 경우는 퇴화~ 이점속, 올해 38세. 그녀야말로 진화의 표본이다. 멋진 샘플~ 5년 전만 해도 친구들은 그녀를 단순한 청순 가련형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지금은 진보적 개척자형으로 달라졌다. 그녀를 와장창~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 정확히 말해서 '돈'이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의 힘은 때때로 막강하다. IMF 훨씬 전, 그녀의 남편은 친구의 사업보증을 썼다가 '쫓딱' 망했다. 그들의 전 재산은 아파트 한 채였는데 그것을 날려버린 것이다. 17평 소형 아파트라 부자들에게 별 것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 부부에게 모든 미래와 꿈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다. 실망을 넘어서 새까만 절망과 낙망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인생의 끝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일 것이다. 그녀는 처음엔 울고 불고 슬프기만 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야 하는 것. 한달 두달이 지나자 그녀는 몸 전체, 아니 마음 전체에 '뚝'이 솟아올랐다. 괴테의 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괴테는 일찍이 이런 시를 쓴 적이 있다.

'약한 자는 고통 앞에 눈물 흘리지만 강한 자는 오히려 빛난다!' 그래, 나는 약한 자가 될 수는 없어~ 강하게 강하게 살아야 해! 그런 생각을 하자 그동안 해바라기처럼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살던 자기가 너무 한심했다. 세상에, 남편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했던 말야?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버린 거지? 내가 완전히 실종되고 만 인생. 좋아,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거야! 그렇다.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 싶을 때, 그녀는 분기탱천 솟아오른 것이다. 마치 상승하는 '화살표'의 모습이었다. 전문대를 졸업했지만 그녀는 그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친구의 소개로 만화가를 보조하는 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다. 어디 그것 뿐인가? 그녀는 투잡족이 되었다. 아직 아이가 없는 그녀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동네아이들의 과외교사로 뛰고 있다. 낙천주의자인 남편은 가까스로 얻은 원룸에서도 부도난 친구객정이 더 크다. 요즘은 만화도 완전 세분화되었다. 그녀가 주로 그리는 건 동물들. 그녀가 그리는 동물들의 표정은 아무리 험악한 사자도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경제력이 생기자 자신감도 함께 생겼다.

자신감은 자유의 또 다른 시작이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인생의 '라인'이 보였다. 그냥 남사는 대로 살다 가는 거지 뭐, 하던 식의 불투명 인생이 이제 비로소 '고딕할자'처럼 투명하게 도드라져 튀어 올랐다. 하루를 살아도 자신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이점속. 일주일 내내 뛰다보니 몸은 과피처럼 힘들어도 마음은 활활 새처럼 가볍다. 남편의 하루일과에 마음의 심지를 '정조준'하고 살던 때, 그녀의 별명은 '남바라기'. '남편만 바라고 사는 여자' 그래서 돈돈부인 '돈만 바라는 부인'이기도 했다. 그 시절 그녀의 몸은 편해도 마음은 얼마나 피곤했단가! 이제 그녀는 평일엔 동물들을 그리며 놀고, 주말엔 아이들을 가르치며 노는 셈이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논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니까 정말 즐겁다. 그렇다. 인생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진화도 되고 퇴화도 되는 것이다. 우리 잠시 생각해봅시다. 나는 지금 진화되고 있는 중인가? 퇴화되고 있는 중인가? <행복 디자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한승표



"우리 아이는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아요" "밤새도록 기침을 하느라 잠을 못자요" 이럴경우 단순한 감기로만 생각해 무심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3주 이상 지속적으로 야간에 기침을 하면서 한두 달 사이에 증세가 호전됐다 악화되기를 반복한다면 한번쯤 천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또 운동 후 가슴에서 짹짹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천식은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 곤란, 기침, 천명(喘鳴·호흡

썩아져서 기침, 천명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소아 천식 치료에는 아이의 주변 환경을 관리해주고,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들을 제거해주거나 피하도록 해주는 회피요법, 원인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원인 알레르겐을 환자에게 조금씩 주사하여 면역이 생기게 하는 면역방법 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여, 급성기 증상을 속히 검사시키고, 장기적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해야 한다. 소아 천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사와 부모가 천식에 대해 이해하고 치

소아천식, 성인천식 안되게 꾸준한 치료

기도가 협착되거나 폐색되었을 때 들리는 소리)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소아 천식환자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 자주 감기에 걸리다 모세 기관지염을 앓게 되고, 천식성 기관지염을 앓은 후 천식으로 발전한다. 천식 증상 발생의 요인으로 아토피, 기도 과민성 등의 유전적인 요인과 호흡기 감염, 알레르기과 찬공기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 알레르기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우리 생활주변에 흔히 접하는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동물의 털, 음식물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기관지에 자극을 받으면 기관지 근육의 수축, 부어오름과 기도내 분비물 축적에 따라 기도기

료를 해야 되며, 청결한 실내 환경을 만든다. 또 원인이 되는 식품(땅콩·메밀 등)이나 애완동물, 흡연 등을 피하고, 가능한 6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천식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소아천식을 앓은 아이들의 일부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평생 동안 앓거나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 좋아지는 경우라도 증상이 호전되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본적이고도 적절한 조치를 받아서 속히 치료해야 하며, 전문 의사의 지도에 따라 꾸준한 치료를 계속해 성인천식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아동소아청소년과 원장>

양식장 난립 방지 '총량제' 도입하자

양식장이 포화 상태. 골프장 등은 총량제 개념을 도입, 난립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데 양식장도 총량제를 도입했으면 한다. 양식업의 경우 육상수조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크다. 워낙 많은 시설물로 인해 주변 어장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없다. 양식장에서 흘러든 찌꺼기가 수중표면에 침착되는 경우도 많다. 자칫 어장의 황폐화는 어민들 생계를 위협할 우려도 높다.

양식업은 권장사업으로 불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다만 해안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양식장에 대한 적정 수준을 정해 운영토록 함으로써 수중 자연 생태계의 보전에 나서야 한다. 자치단체는 양식장 총량제 도입을 통해 양식장이 바닷가를 뒤덮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한선희·목포시 놀도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

기고

박병재



광주에서 출·퇴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목숨을 내놓고 다녀야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달아 속도와 경쟁만을 앞세우다보니 모험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대담하게 자전거를 이용한다. 약 6년 전부터 거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여행 때 직접 본 뒤 너무 좋아 보여 자전거를 타고 있다.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이 많다. 교통 체증에 짜증을 낼 필요도 없고 체력도 튼튼해지고 하체가 강화 되고 교사인 입장에서 하루 4~5교시 곳곳이 서서 수업해도 지치지 않는다. 또 기름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 하

도로는 내려오면 안 된다는 식이다.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도로 행정, 이정도 수준이다.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 다른 시·도와 다른 점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예컨대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 설치하되 시내 중심도로에 진입하는 차에 대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비싼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특히 새로 짓는 금남로 문화회관을 둘러싼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대신 벽돌을 네덜란드처럼 깔아 천천히 다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순환도로를 만들면 만들수록 자동차는 늘어난 것이다. 가뜩이나 좁은 땅, 언제까지 자동차만을 위한 교통 행정을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자

소연을 할 필요도 없다. 물론 광주 공기를 맑게 하는데 한 몫을 하니 자연스럽게 환경 운동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불편한 점도 많다. 우선 차도로 다니다보면 위에서 운전자가 누르는 경적 소리를 들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共存共生' 하라는데 차 운전자 치고 약자를 배려하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10분 먼저 빨리 가다가 10년 빨리 가버리는 일 많은데 조금 느긋하면 안 될까. 도로 현실은 더하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모두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자전거, 경운기를 배려한 도로는 없다. 오직 차 운전자들만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것 같다. 인도에 자전거 모형을 그려놓은 뒤 조심해 다니라고 하는 것도 우습다. 차

필할 것인가. 시내 도로 중 일차선에 대해서는 자동차 통행이 이뤄지게 하고 상해의 경우처럼 나머지 차선은 자전거가 다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화수도 광주'라는 말, 다른 지역민들이 확실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 '광주는 다르다. 그래서 문화수도'라는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차가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 광주시 행정가들의 책무 아닌가. 말뿐인 자전거 전용 도로만 만들지 말자. 도로교통 환경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맑은 공기가 출렁이는 빛고를 광주에서 깨끗한 쾌를 갖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광주 살레시오초교 교사>

운전자들 주유원에 반말 삼가야

주유소에서 주유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주유원들은 주유소로 차량이 들어오면 달려가 꾸벅 인사하며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라는 말을 건넌다. 모든 운전자들에게 똑같이 건네는 말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양하다. 우선 무조건 반말조 운전자들의 경우 대부분 젊은 운전자들이다. 말투도 "어이, 빨리 안넣고 뭐해?"라는 식이다. "반말(가득) 넣어라! 얼마나?"를 비롯해 "야, 재떨이쯤

비워와라"등 반말에 명령조 말을 뱉어낸다. 반면 60~70대 이상 운전자들은 "카드 되죠? 3만원만 넣어주세요"라며 오히려 높임 말을 쓴다. 주유소를 빠져나가면서 "학생, 수고해요. 또 봅시다"하는 운전자도 많다. 주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아이나 하인 다루듯 해서 안된다. 자신들의 동생 또는 아들, 딸의 친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자동차가 필수품인 시대, 걸맞은 주유소 매너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 <김경삼·광주시 북구 용봉동>

시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주민 무시한 횡포다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 의정비가 대폭 인상됐다. '의정비 현실화' '다른 지방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된 지방의회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의정비 인상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고, 절차상의 투명성도 미약했다. 나주시가 무려 75.2% 인상한 것을 비롯해 6곳이 40% 이상 인상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방의회도 인상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실업에 허덕이고 서민들은 비정규직으로 월 100만원 안팎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은 횡포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의정비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스스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 만큼 엄격함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

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정비 인상 절차는 완전 개방형으로 공개 운용돼야 하지만 주민들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기, 위원 면면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여론 수렴절차도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장이 심의위원을 과반수인 5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문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휘의 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민의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힘든 현행 의정비 심의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불법·편법 의정비 인상에 대한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사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 5명중 1명이 '빈곤자'인 분배구조

지난해 도시가구의 상대빈곤율이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가 안되는 가구소득 인구비율)이 지난해 16.42%로 전년 15.97%에 비해 0.45% 올랐다는 것이다. 국민 5명 중 1명 정도가 '빈곤자'로 몰려간 셈이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큰 일이다.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이후 떨어졌다가 지난 2003년부터 오름세로 반전돼 지난해 최고치를 보였다.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분배구조가 악화된 원인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소득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는 분석이다. 시장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이 최하위 10%의 24배에 달하고 있는 사회가 정상일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유가와 원화까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 '3고(高)'의 고통을 앓고 있다. '3고'는 고용·투자·소비지출을 위축시켜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분배구조가 악화된 원인이 ▲정당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의 약화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 ▲자영업 분야의 구조조정 ▲실직 위험의 증가 등에 있다. 정부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꼽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불어 가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무엇이 존재했고, 사람들이 둘러싸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이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하지만 '기행'이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무진'은 지도상에 없는 땅이다. 이창준의 '이어도', 박재구의 '사평역에서'처럼,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세계다. 소설은 70년 초 신성일과 윤정희가 둘러싸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이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나 홀로 걸어가 /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 그 언젠가 다했던 / 그대의 옛그림자 / 그대 생각하면 무엇이 상상하는 매개물이다. <정기태 시화1부장> meonsan@kwangju.co.kr

안개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광주일보)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as well as website information.